

<b>MOST</b> 과학기술부	<b>보도자료</b> □□□□□□□□□□	보도 시점	'05. 11.04(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5.11.03	매 수	총 9 매
정책홍보 담당관실	담당 종합기획과	과 장	강영철	02)2110-3760	
		사무관	김 연	02)2110-3765	

## “글로벌 차원의 국가기술혁신 전략 논의”

-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 개최 -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吳 明)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 柳熙烈)은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미래 기술예측에 관한 글로벌 활동을 살펴보고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동 행사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IBM, STEPI, RAND 연구소가 후원하며 특히 한국IBM(주)는 전문가 초청 등 행사 준비에 많은 협조를 했다.
-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선진한국의 기술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Shaping the Future : Innovative Korea"를 모토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 유엔대학의 세계적 미래학자인 테드 고든(Teodore J. Gordon) 박사와 미국 국립 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ies)의 혁신 정책분야 전문가인 찰스 웨스너(Charles W. Wessner) 박사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과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다가올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기술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吳 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에 이번 국제포럼이 우리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미래기술예측 활동」을 주제로 하는 세션 I (Technology Foresight Session: Global Activities)에서

- 유엔대학의 테드 고든(Teodore J. Gordon) 박사는 「예측, 혁신, 그리고 지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예측(Foresight)은 지능(Intelligence)을, 지능은 지혜(Wisdom)를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한다.
- 이어서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의 고나까(Motohide Konaka) 소장 and EU의 보베(Werner Wobbe)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유희열 원장은 각각 일본과 EU,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예측조사 현황을 소개하고 미래기술발전 전망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하는 세션 II (Technology Innovation Session : National Strategies)에서

- 미국 국립아카데미의 찰스 웨스너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의 지식 기반경제에서 혁신을 위한 국가발전 능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적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이어서 OECD 과학기술산업국의 다나까(Nobuo Tanaka) 국장과 과기부의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 한국 3M의 이인희 부사장은 각각 OECD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토의한다.

□ 과학기술부는 이번 국제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미래기술예측활동과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운용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 참고자료 : 1. 행사 개요, 2. 주제발표 요약, 3. 외국 연사 약력

## 1. 행사 개요

- 행사명 :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Technology Foresight & National Innovation Strategies)
- 주 제 : 「*Shaping the Future : Innovative Korea*」
  - 세션 I : 글로벌 미래기술예측 활동  
(Technology Foresight Session : Global Activities)
  - 세션 II :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전략  
(Technology Innovation Session : National Strategies)
- 일 시 : 2005. 11. 4(금), 09:00~17:00
- 장 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오키드룸(2층)
- 주 최 : 과학기술부
- 주 관 : KISTEP
- 후 원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IBM, STEPI, RAND연구소
- 좌 장
  - 세션 I : 윤대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세션 II :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
-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 전체 행사 진행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개회식	9:00 ~ 9:30	등 록
	9:30 ~ 9:40	개회사 (유희열 KISTEP 원장)
	9:40 ~ 9:50	기념사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9:50 ~ 10:00	Coffee Break
세션 I	10:00 ~ 12:30	<p>◆ 주제 : 글로벌 미래기술예측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장 : 윤대희 연세대학교 교수</li> <li>○ 기조연설: Dr. Theodore J. Gordon(UN University)</li> <li>○ 발표자 : Mr. Motohide Konaka (NISTEP) Dr. Werner Wobbe (EU) Dr. 유희열(KISTEP)</li> <li>○ 토론자 : Dr. Richard Silbergliitt (RAND연구소), Mr. Stephen W. Braim (IBM) Prof. Qiquan Yang (중국 국립과학기술연구센터)</li> </ul>
	12:30 ~ 14:00	Luncheon (hosted by IBM)
세션 II	14:00 ~ 16:45	<p>◆ 주제 :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장 :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li> <li>○ 기조연설: Dr. Charles W. Wessner(U.S National Academies)</li> <li>○ 발표자 : Mr. Nobuo Tanaka(OECD) Dr. 한승희(과기부) Dr. 이인희(한국3M)</li> <li>○ 토론자 : Dr. Heikki Kotilainen(핀란드 기술청) Prof. 허 욱(美 위스콘신-밀워키 대학) Mr. Motohide Konaka(NISTEP)</li> </ul>
	16:45 - 17:00	정리 및 폐막

## 2. 기초연설 및 주제발표 요약

### 세션 I

#### □ Theodore J. Gordon (유엔대학 내 미국위원회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책임자)

- "Foresight, Innovation, and Wisdom" (예측, 혁신, 그리고 지혜)

- 기술예측과 미래연구는 미래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윤리적 이슈 등의 한계가 존재함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과학윤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있어 성과와 책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예측은 지능(intelligence)으로, 지능은 지혜(wisdom)로 이어져야 할 것임

#### □ Motohide Konaka (일본 NISTEP 소장)

- "Current Technology Foresight in Japan" (일본의 기술예측 현황)

- 일본은 30년 이상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기술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NISTEP은 제8차 기술예측조사를 2년 연구사업으로 실시함
- 동 예측조사는 日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의 사업으로 '06년부터 '10년까지의 미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투자·자원배분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예측조사에서는 새로운 다목적 예측방법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기존의 예측조사보다 기초과학, 기술, 사회적 영향을 넓게 분석

□ **Werner Wobbe** (EU 위원회, 과학기술예측팀장)

- “Technology Foresight in the EU” (EU의 기술예측)
- EU의 국가별·지역별 수준의 기술예측 현황과 유럽의 과학 기술예측 활용, 운영의 성격을 설명하고 EU 내 각국 정부,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와 예측 방법론, 운영 형태 등을 소개

□ **유희열** (KISTEP 원장)

- “한국의 기술예측과 미래 전략기술”
-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제3차 과학기술예측조사는 2030년까지의 전망을 통해 미래기술을 도출함
-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예측조사 결과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 21」을 발굴하여 추진 중임

**세션 II**

□ **Charles W. Wessner** (미국 국립 아카데미, Director)

- “Myths and Realities in the Global Innovation Ecosystem”  
(글로벌 혁신생태계의 이상과 현실)
- 오늘날의 국가 혁신생태계 내에서 혁신은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
  - ※ 여기서 생태계란, 연구실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화하기 위한 산·학·연 간의 협력적 시너지 창출 네트워크
- 우수한 국가 생태계를 위해 산·학·연 간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는 메커니즘과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함

□ **Nobuo Tanaka**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국장)

- "Challenges to National Innovation Policies"(국가 혁신정책의 과제)
- OECD의 국가들은 최근 R&D의 국제화,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강화, 중국과 인도의 부상 등을 경험하고 있음
  - 정보통신, 효율적 교통수단, 정부형태의 융합 등을 통한 R&D 글로벌화는 개방과 연관되어 있으며, OECD의 계량 분석결과 국내 R&D보다 외국 R&D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침
- 글로벌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OECD 경제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혁신정책의 틀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통해 이루어지며, OECD 연구에 따르면 국가 혁신정책을 운용하는 데에는 소통 가능한 비전 개발, 적합한 지식기반 확충,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수평적 시도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인희** (한국 3M 주식회사 부사장)

- "A Century of Innovation"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
-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그룹이 되기 위한 비전으로 100여년간 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온 3M의 사례를 소개
  - 3M이 작은 사포 가게에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업문화, 그리고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 등을 제시
  - \* 3M에서 혁신의 의미는 3M 기술을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전환시키는 것

### 3. 외국 연사 약력

#### □ Theodore J. Gordon (유엔대학 내 미국위원회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책임자)

- 세계적 미래학자 중 하나인 테드 고든 박사는 여러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가이며 예측 방법론, 기획 정책 분석, 기업가, 그리고 발명가
  - 다국적 컨설팅 조직인 「The Future Group」의 CEO
- 중점 연구분야
  - 경제·사회 개발 분야, 국제 시장 기회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전략, 하이테크 기술 개발과 투자 기회, 기술이전 등
  - 보험, 컴퓨터, 금융,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예측·분석 방법론 설계 등

#### □ Charles W. Wessner(미국 국립 아카데미, Director)

- 찰스 웨스너 박사는 미국의 과학기술 자문 및 의사 결정 기관인 美 국립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의 기술, 혁신과 기업부문 총괄
- 미국 의회와 주요 정부 부처, 국제기구의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대학에서 교환 교수와 연구원으로 활동
- OECD 30개국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위원과 멕시코 국가 과학 기술위원회, 핀란드 기술청(Tekes), 스웨덴 기술청(Vinnova)의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고 노르웨이 기술 포럼, 대만 총리 과학 기술 자문위원회 등의 멤버로 활동
- 중점 연구분야
  - 과학기반의 경제 성과와 기업, 신기술 개발, 산·학 클러스터, 지역 개발, 중소기업 재정 및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쉽

- 국제기술협력, 하이테크 산업 투자와 무역에 관련한 정책 이슈
- 기업의 활성화 및 신기술 개발 지원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

□ **Mr. Nobuo Tanaka**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국장)

- 다나카 씨는 2004년 8월부터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국장으로 과학정책, 정보통신기술, 경제 통계 분석,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총괄
- 학력 및 주요 경력
  - 동경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 오하이오 주의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MBA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주 미국 대사관, OECD

□ **Mr. Motohide Konaka** (NISTEP 소장)

- 고키카 씨는 현재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으로서, 주요 전문분야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 학력 및 주요 경력
  - 교토 공과대학 기계공학과(1971년), 동 대학원 졸업(1973년)
  - 1973년 일본 과학기술청, 국제협력부를 시작으로 30여년간,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동

□ **Dr. Werner Wobbe** (EU 위원회, 과학기술예측팀장)

- 보베 박사는 지난 20여년간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예측 분야, 산업정책 개발, 에너지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
- “유럽의 미래 산업”과 “기술과 실업” 등의 연구 활동 지도